

# 늦어지고 있는 김정일 공식등장

鄭 錫 弘

〈平和統一研究所·研究委員〉

## 김일성의 돌연한 사망

작년 7월 김일성의 돌연한 사망은 국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김일성이 북한 공산체제를 49년동안 1인독재체제로 지배해 왔기 때문이다. 아마 그는 왕조사를 통해서 보아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동안 집권한 사람의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김일성은 냉전체제가 시작된 이후 1세대 통치자로서 가장 늦게 퇴장한 인물이기도 하다.

우리는 또 김일성이 사망하면 북한이 무너지거나 사회주의체제에 어떤 변화가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고 그렇게 인식되어 있었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후 북한체제는 외면적으로 평온한 가운데 이들 김정일로 대가 이어지는 예정된 각본에 따라 공고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또하나 불가사의한 것은 김일성이 사망한지 7~8개월이 되도록 국가주석직과 당총비서직을 공식으로 두고서 통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북한은 아직도 김일성 통치시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통치를 두고서 「유령통치」라는 말을 쓰고 있다. 북한 방송에서는 아직도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그의 영도력에 의해 통치되고 있음을 확인시키고 있다.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헌법상 국가주석이 유고됐는데도 후임자가 7~8개월이상 선출되지 않고 있는 예가 있으며, 특히 당중심주의 체제에서 당총비서 자리를 메꾸지 않고 당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었던가. 실로 북한

체제는 순리와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체제이다.

그리고 중요한 관심의 하나는 과연 김정일이 김일성의 대를 이어 국가주석과 당총비서에 오를 것이라고는 예측하면서도 왜 그가 지금까지도 공식 등장하지 않고 있는나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알고 싶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 김정일의 후계체제는 확정적

김정일의 공식 등장이 늦어지자 이에 따른 추측이 난무한 것은 사실이다. 가장 그럴듯한 추측은 김정일의 건강이상설이다. 이 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그가 김일성 사망시 장례식에서 대단히 병약한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이다. 확인하기 어려우나 김정일은 재작년에 승마하다가 낙마, 뇌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평소 지병으로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김정일이 단신임에도 몸이 비대한 것을 보면 당뇨, 고혈압, 심장병을 의심할 수도 있다. 그리고 김정일의 수술을 위해 모 선진국 전문의가 북한을 비밀리에 입국한 바 있다는 설도 나왔다.

그러나 하면 지난 3월에 죽은 인민부력부장 오진우가 생전 불란서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은바 있는데 이때 김정일의 진단기록들도 아울러 불란서 의료진에서 검토된 바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의 건강에 대한 여러가지 미확인 보도가 흘러나온 가운데 최근 김정일의 공식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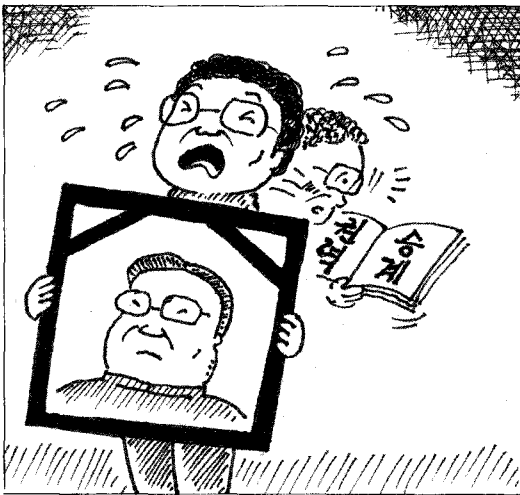
출현으로 지나친 추측은 가신 것 같다. 물론 TV 화면에서 김정일의 지병까지 알아낼 수는 없으나 외양으로 봐서 옛날과 같이 건강한 모습을 되찾은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일성 사망 당시 김정일의 초췌한 모습은 김일성을 잃은 슬픔과 급변한 상황에 대처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일단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하지 않은 이유로서 건강이상설은 별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권력내부간의 갈등, 심지어 군부 쿠데타까지 있다는 설이다. 과거 공산권에서는 후계자문제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독재자의 사후 권력층이 전개되었고 심지어 체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도 했다. 소련에서 스탈린이 죽고나서 권력투쟁이 심각했으며 또 흐르시초프가 권력을 잡음으로써 「화공론」이 나왔고 소련이 일시 「해빙시대」(解氷時代)를 만나기까지 했다.

근래 들어서는 브레즈네프의 사망으로 권력투쟁이 심각하게 전개되었으며 결국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소련의 공산제국의 몰락과 함께 동구공산권이 붕괴되고 말았다. 그리고 동·서독의 통일도 이루어졌다.

중국에서는 모택동의 사망이후 역시 권력투쟁이 벌어졌으며 결국 덩소평 등장으로 「죽의 장막」을 걷어 치우고 개방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러한 공산권 권력투쟁과 변혁을 지켜본 김일성은 그의 아들에 의한 후계체제를 더욱 공고히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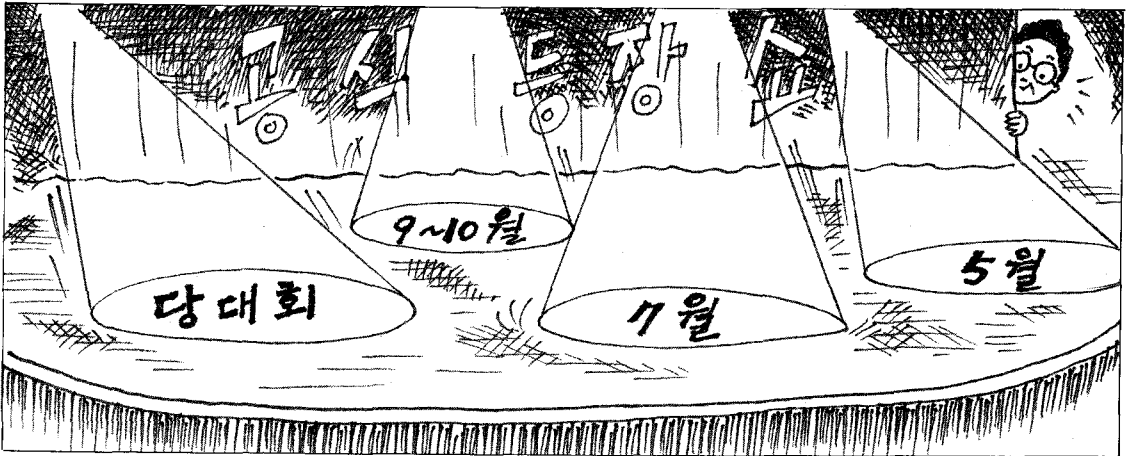
쿠데타에 관한 추측도 신빙성이 없다. 물론 김정일이 김일성 사망후 군부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군부 방문등 김일성과 다소 차별적인 행태가 있기는 하지만 군부에 의한 권력장악, 통치자 옹립 등에 관한 조치는 억측일 수 있다. 김정일은 정초 북한군 124군부대를 방문한 데 이어 1개월 만인 25일에는 최전방 2191부대 여성해안포중대와 2월 6일 제155군부대를 시찰한 바 있다. 권력서열도 종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김정일의 위치가 굳건하다는 것은 금년에 맞은 53회 생일(2.16) 행사에서 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우선 북한은 김정일 생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규정하고 대내외적으로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대내적으로는 5,300명(53회 생일 상징)의 「답사행군대」를 조직, 이른바 김정일의 항일 「백두산 밀영」을 참관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사상, 예술, 체육 분야에 걸쳐 26개 행사를 진행하였다. 대외적으로는 43개의 친북단체를 동원, 경축집회와 김정일노작연구토론회, 영화감상회 등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김정일이 썼다는 「사대주의는 과학이다」 제하의 문헌을 쿠바를 비롯한 5개국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보급하였다. 또한 선전매체를 동원하여 「영도자」로서의 김정일 위상 선전에 주력하였으며 200여명에게 학위·학직 수여 및 김정일 우상화 관련 문예작품들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김정일의 생일에 관한 결정만 보아도 금년은 특별한 점이 있다. 김정일 생일은 1974년 2월, 처음으로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1975년에는 생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였으며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당 상무위원으로 선출된 다음부터 행사규모를 크게 확대하였다.

1982년 40회 생일은 이 때를 기해 한달간을 「2월의 명절」로 하는 한편, 금년 2월 7일은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민족최대의 명절」로 지정, 발표한 것이다. 과거 김일성 생존시 김일성 생일만이 민족최대의 명절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김정일은 바로 김일성의 빈자리를 메꾸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기존의 행사 이외에 김일성 생일에 버금가는 「중앙보고대회」, 「중앙연구토론회」등의 행사를 새로이 진행하였던 점을 보면 김일성의 후계체제는 추호도 이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최고통치자라는 점은 김정일의 호칭에서도 알 수 있다. 김정일에 대한 호칭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 「진정한 인민의 영도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절세의 위인 영도의 천재」등이다. 결국 김정일을 김일성의 후계자로 확고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그가 공식적으로 등장할 날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 김정일 등장, 무엇이 문제인가?

김정일의 공식 등장, 즉 국가주석직과 당총비서직에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 지금도 실제 상응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리하면 왜 아직 공식적인 자리에 등장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가름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김일성의 애도기간이 적어도 그의 생일인 4월 15일까지는 갈 것이란 설이다. 북한의 정치일정으로 보면, 4월말에 「평양축전」이 개최되므로 애도기간은 늦어도 그 이전에 끝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애도기간이 계속되는데 축전을 벌인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더욱이 효심이 지극하다는 김정일의 위상에도 맞지 않고 북한 주민들의 정서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김일성의 매장문제나 추도분위기 문제와는 좀 다르다. 공식적인 애도기간 후에도 추도분위기는 그의 1주기인 7월 8일까지 갈수도 있다. 그리고 김일성의 시신이 아직 주석궁에 안치되어 있으며 정식 매장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지금 러시아 기술자에 의해 방부처리중이라고 하며 방부처리가 끝나면 「혁명열사릉」 중앙의 안치소(유리관)에 매장절차를 밟을 것이라 한다. 유리관에 안치되면 레닌이나 모택동의 시신처럼 일반

에게 공개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김정일의 등장은 김일성의 애도기간이 일단 끝나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4~5월로 등장시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적어도 7월 8일, 1주기가 끝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충분한 애도기간이 끝나고 시신이 안치된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효심을 강조하는 김정일의 정서에도 맞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김정일이 새로운 김정일 수령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대내적으로 김정일은 경제적인 면에서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 북한은 지금 에너지, 식량문제 등으로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탈북사건 등 사회적 일탈현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북한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약속해야 한다. 지금 북한은 1993년까지 3차 7개년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고 1994년부터 1996년까지를 목표로 3년간 완충기를 설정,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은 25기 수령시대를 열고 동시에 경제적인 새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지금 나진·선봉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기업인의 방북을 초청한 것도 경제적으로 위기를 돌파해 보기 위한 것이다.

김정일은 대내적으로 권력재편문제를 아직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김정일 시대를 열려고 하면 자기 식대로 권력을 개편해야 하고 김일

성시대의 인물들에 대해서도 명예롭게 후퇴시키고 이들 혁명 1세대들에 대한 대우도 마련해야 한다. 김정일이 김일성의 대를 잇는다고 해도 권력구조는 역시 혁명 2세대 중심으로 많이 짜여질 것으로 본다.

김정일 체제는 대외적으로도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제네바 미·북 합의에 따라 대미관계가 순조롭게 진척되어야 한다. 적어도 그의 등장과 아울러서 평양에 미국의 연락사무소는 설치되어야 할 것이고 워싱턴에도 평양연락사무소가 설치되어 인공기가 휘날리는 것이 소망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적 스케줄이 잘 맞아들어갈까 걱정이다. 이러한 스케줄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4월 21일까지 경수로 문제가 매듭지어져야 다음 단계 스케줄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형 경수로 선택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 때문에 미·북합의가 난항에 부딪치고 있다. 김정일은 적어도 자기 수령시대의 개막과 함께 미국과의 초보적 관계개선을 이루어 놓으려고 할 것이다. 만약 북·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더라도 김정일체제가 출범 못할 것은 아니지만 김정일체제의 앞날이 험난하리라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남북관계에서 북한은 종전대로 당국을 배제시킨 통일전선차원에서 대남 선전선동을 강화할 것이다. 그들은 이미 「8.15대민족회의」를 목표로 반정부, 반체제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남자세는 김정일 등장에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내외 정책과 관련하여 북한의 정강 정책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이에 대한 결론은 시간을 더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유훈에 따라 통치하겠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으나 그동안 국제정세의 변화, 김일성 사망후 북한체제의 향방 등과 관련하여 볼 때 과거의 당규약이나 헌법, 기타 정책로선을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북한의 기본로선의 정리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내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북한의 개방문제이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군부를 중심으로한 강경파가 경제회생을 위해서 얼마나 개방화에 성의를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북한은 체제유지의 핵심은 역시 군부다. 이 군부의 동의없이 개방과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다. 김일성도 군부세력에 대해서는 존

중하여 왔는 바, 김정일의 지도력으로서는 군부에 놀아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핵무기 개발 등도 군부의 영향력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사정이 정리되어야 김정일이 공식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최근 설득력을 갖게 된다.

## 공식등장 임박

김정일의 공식등장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① 적어도 김일성에 대한 애도기간이 끝난 다음  
② 김정일 수령시대에 내용을 노선정리가 끝나고 권력 재편작업도 끝난 다음  
③ 북한에 대한 대외 환경이 좋아져야 할 때로 본다.

그런데 위에서 ①, ② 조건은 대내적으로 작업될 수 있으나 ③의 조건은 북미관계가 순조롭게 풀리지 않으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일은 ③의 조건을 무시하고 제2의 수령시대를 개막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외여건을 좋게 만들지 않고 공식 등장했을 때 받을 시련은 큰 것이며, 급기야 김정일체제를 붕괴로 몰아 갈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김정일체제 출범이 9~10월경으로 아주 늦추어 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아울러 1980년 이후 열지 못하고 있는 제7차당대회를 열어 보다 화려한 김정일 수령시대의 광과래를 올릴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 북한에서는 거대한 노동당창건기념탑을 서둘러 건립하고 있고 그것도 10월 당창건 기념일에 앞당겨 준공할 것으로 목표하고 있다.

김정일 체제는 적어도 4, 5월 이후 10월 이전에는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 총비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국가주석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각각 선출하게 되므로 이들 기관이 소집은 김정일의 공식 등장과 연결된다. 만약 7차당대회를 연다고 하면 당규약상 6개월전에 당중앙위원회에서 소집하게 되어 있어 당대의 개최 여부는 4~5월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당대회 개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많다. 당대회를 열어 무엇하겠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김정일이 이런 상황하에서 당대회를 거창하게 열고 떠들 건덕지가 없다는 혹평이다.

어떻든 현대 국가에서 통치권자의 유고 상태로 장기간 통치되고 있는 나라는 북한 밖에 없다. ▲